



디자인★최은영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는 어린이의 꿈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미래 우주인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주최·주관 동아사이언스 함께고홍

○후원 **☆KOLOM** BORYUNG

NARA SPACE

(A) Hanwha Aerospace

KI 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subseteq



UP (1)

인튜이티브 머신스

애기터 구페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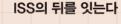
우주 기업을 조사하라!

응답하라, 우주 기자단. 여기는 휴스턴 컨트롤 타워.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다. 첫 번째 미션이다. 새로운 우주 시대를 이끄는 민간 기업들을 방문해 이들의 기술을 조사하라. 타깃은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액시엄 스페이스다!



착륙선 모형과 패션 기업 프라다와 협업힌





다음은 은퇴를 앞둔 국 제우주정거장(ISS)을 대

INTUITIVE MACH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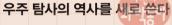
신할 우주정거장 '액시엄 스테이션'을 개발하는 회 사 액시엄 스페이스에 갔어요. 한창 제작 중인 실 물 크기의 우주정거장 시제품을 본 유재민 어린이 기자는 "새 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다"며 감탄했어요. 액시엄 스테이션은 조립 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에요. 한 번 문제가 생 기거나 낡으면 전체를 다 버려야 하는 ISS와 달리. 액시엄 스테이션은 연구, 관광, 거주 등 필요한 기 능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바꿔 끼울 수 있어 요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심리 적 안정을 고려한 디자인도 인상적인 부분이지요.

액시엄 스페이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정화 씨는 "정거장의 여러 공간 중 우주인들이 잠을 자 고 생활하는 공간의 내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며 "사람이 주로 평면적으로 이동하는 지구와 달리 360°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주에서는 동선을 훨씬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우주 건축물 다 자인의 특징을 꼽았어요 그러면서 "우주 건축물은 비용이나 크기. 소재의 제한이 지구보다 더 큰데. 한정적인 조건 안에서 최적의 공간을 설계하는 과

많은 기업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모듈 : 조립 부품.

정이 무척 재밌다"고 전했어요.



지난 2월 23일,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에서 개발한 '노바-C'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 아폴로 17호 이후로 52년 만에 거둔 성과였지요. 우주 기자단은 인튜이티브 머신스를 찾아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알테머스를 만났어요.

> 알테머스는 "노바-C 가 착륙할 때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걱정

> > 했는데, 결국 교 신에 성공해 다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고 회 상했어요.

노바-C는 달 표면에 과학 장비와 실험 장치 를 배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미국항공우주국 (NASA)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달 탐사와 달리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요 단순히 달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 탐사 기술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거지요. 알테머스는 민간 기업으로써 달 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윤을 남기려면 자체적인 기술을 새로 개발해 야 한다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쓰이 는 기술 대신 우리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져요. 기존에 없던 방 법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우주 산업은 우주 탐사 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주 를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타 방 기 ②

MIT 미디어랩

HIS Youth 워크숍을 취재하라!

긴급! 세계적인 명문 매시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특별한 워크숍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두 번째 미션이다. HIS Youth 워크숍에 참여해 중 고등부의 연구 발표를 듣고 그 내용과 멘토의 피트백까지 빠짐없이 보고ohtho

우주인이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주제로 에스파, 별누리. 향기로운 우주 총 3개 팀이









밀착 멘토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다

발표 후에는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어요. 우주 거 주지를 연구하는 '아우렐리아 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 아리엘 에크블로 박사. 미국 하버드 의과대 학교 최학수 교수. MI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 생 노희건 연구원이 멘토로 나섰지요. 각 팀은 돌 아가며 멘토와 만나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향.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학수 교수는 화학 분야에서 일하다가 의학 분 야로 뛰어들게 된 과정을 들려주며 "매일 눈을 떴 을 때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강 조했어요. 그는 "30년을 일했지만 아직 실험실에 갈 생각을 하면 너무나 설렌다"며, "여러분에게 그 런 일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라"고 조언했어요.

아우렐리아 인스티튜트의 아리엘 에크블로 박사,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최학수 교수, MIT 노희건 연구원이 멘토를

인스티튜트가 개발한 우주 거주지의 일부를 나타낸 모형.

멘토링 후에는 에 크블로 박사의 강연 이 이어졌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우

주정거장에 고작 열댓 명 밖에 지낼 수 없다는 건 아까운 일"이라며 "아우렐리아 인스티튜트는 우주 에서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게 고민하는 동시 에 우주 정책과 법률 등 우주 사회를 만드는 데 필 요한 요소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항산화, 안압 예측 AI, 향기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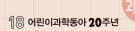
HIS Youth 중·고등부 팀이 MIT 미디어랩에 모였어 요. 'ISS에 1년 이상 체류할 때 신체에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멘토 앞 에서 발표하기 위해서였지요 먼저 에스파 팀은 '우 주 환경에 최적화된 항산화제 개발'을 주제로 발표 했어요. 세포 내 지질, 단백질, DNA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 화 작용을 위해 효과적인 투약 방법이 무엇일지 연 구했지요. 에스파는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과정 을 컴퓨터로 모의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산화 제 알약. 패치. 흡입의 세 가지 형태를 제안했어요.

별누리 팀은 '우주인의 안압 조절을 위한 인공지 능(AI) 개발 및 인공중력 생성 기술'에 대해 발표 했어요. 우주에서는 미세중력 때문에 안압이 높아 져 시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며, AI 기 반 안압 예측 및 경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어 요 나아가 속도 조절 장치를 활용한 인공중력 발 생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지요.

향기로운 우주 팀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우주 인들이 깊이 잘 수 있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 감을 높이는 향기 캡슐을 제안했어요. 우주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향기'라는 신선한 접근으로 해 결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지요. 세 팀의 발표를 들은 조은영 어린이 기자는 "언니. 오빠들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 느껴 졌다"며, "나중에 HIS Youth 대회에 참여하고 싶 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탐 방 기 ③

리미트리스 스페이스 인스EI튜트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선렵하라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태양돛 만들기 체험을 했다. 조은영 어린이 기자는 "심우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태양돛을 활용하면 심우주를 탐사할 수 있다고 해서 활동이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여기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조사 대상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다. 리미트리스 스페이스

인스티튜트에 진입하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무심코 학생들을 따라가지 않게

주의하라. 이번 타깃은 선생님들이니!



학생과 선생님, 모두를 위한 우주 교육

리미트리스 스페이스 인스티튜트(LSI)는 NASA의 퇴역 과학자와 현직 우주 탐사 전문가들이 운영하 는 우주 교육 기관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뿐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지요. 이날 워크숍의 주인공은 선생님 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미국 탐방에 동행한 우리 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도 워크숍에 참여 해 실제 우주 임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했답니다.

LSI 케이시 하인스 교육 디렉터는 "우주 탐사에

서는 관제소와 우주선 사이의 소통이 모 든 임무의 성공을 좌우하다"며 "우 주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간단한 게임을 소개하겠다"는 말과 함께 레고 블록과 가림 막을 꺼냈어요. 선생님 중 한 명은 설명서를 받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나머지 세 명 은 실제 레고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조립 방법을 설명하는 미션이었지요.

전체 블록이 46개인 아주 간단한 레고였는데도 제한 시간 안에 완성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조립을 맡았던 별누리 팀 지도교사 권영택 선생님은 "대화 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려 웠다"고 말했어요. 이소연 박사는 "우주에서 이뤄 지는 소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평가 하며 "우주인들이 협력할 때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



작한다"고 설명했어요. 미지의 물체와 낯선 물건이 가득한 우주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려면 외국어 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하인스 디 렉터는 "이 활동은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도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훈련시킨다"고 덧붙였어요.

레고 조립 외에도 빨대 로켓 만들기. 풍선 로켓 만들기 등 발사체를 만드는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 는 활동이나. 구형 로봇을 이용해 여러 개의 탁구 공을 옮기면서 효율적인 탐사용 로봇 설계를 고민 하는 종이컵 로버 만들기 활동도 진행했어요. 모두 간단한 준비물로 짧은 시간에 체험할 수 있는 활 동임에도 우주 교육의 핵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짜여 있어 선생님들의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이와 테이프로 로켓을 만든다. 종이로 만 로켓 몸통에 빨대를 · 다음 힘껏 불어 누가 더 멀리 나는지 확인한다. 발사 각도와 내의 위치 등이 비행 거리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다.



중선, 빨대, 실을 사용해 간단한 날사 사스템을 만든다. 공기를 채운 중선의 표면에 빨대를 붙인 뒤 공기가 빠져나가는 힘으로 로켓을 한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발진을 위한 설계를 익힌다



구형 로봇에 종이컵을 씌우고 원하는 모양으로 팔을 붙여 탐사 로버를 만든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탁구공을 목표 장소로 옮기면서 더 효율적인 구조가 무엇일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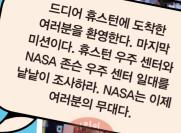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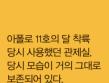


J/ (4)

휴스턴 우주 센터

NASA를 완전 정복하라!





00700A00A00A00

0800000000000000











우주 탐사의 역사를 돌아보는 트램 투어

손꼽아 기다리던 탐방지, NASA에 도착한 우주 기

자단은 먼저 전시 공간인 휴스턴 우주 센터를 둘러

봤어요. 화성에서 가져온 암석. 실제 우주인이 착

용했던 우주복, 우주정거장 모듈 등 눈이 휘둥그레

지는 전시물이 가득했지요. 센터 밖으로 나가자 본

첫 번째 목적지는 '미션 컨트롤 센터'였어요. 아

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순간을 지

격적인 NASA 투어를 위한 트램이 서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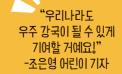


휘했던 관제실로. 그 당시의 모습을 90% 가까이 보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지요. 투어 가이드는 "이곳이 바로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라는 유명한 말이 탄생한 장소"라며 "아폴로 11호 미션뿐만 아 니라 아폴로 13호 미션 때도 성공적으로 귀환 임무 를 완수했던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관제실에는 실제로 사용했던 장비와 아폴로 11 호 착륙 당시의 화면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어요. 복 잡한 데이터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숫자들이 긴박 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죠. 가이드는 "지금은 컴

> 퓨터 기술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계산하 고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어요.





우주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두 번째 목적지인 우주인 훈련 시설을 지나 마지 막 목적지인 '로켓 공원'에 도착했어요. 로켓 공원 은 아폴로 미션과 다른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사용 된 거대한 로켓들이 전시된 장소예요. 우주 기자단 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압도적인 크기의 로켓, 새 턴 V였어요 두 어린이 기자는 로켓을 살피며 "우리 나라에서 본 누리호보다 훨씬 커서 놀랍다"고 입을

모았지요. 높이가 약 110m에 이르는 새턴 V의 내 부가 수많은 장치로 빼곡한 것을 관찰하며 우주 탐 사 기술의 정교함과 복잡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간 이어진 미국 우주 탐방은 우주 기자단 과 HIS Youth 청소년 최종선발팀에게 우주에 관 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줬어요. 내년에도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우주로 발 사하세요! 🖨



디딤돌 삼아 우주 공학자가 될 거예요!" 유재민 어린이 기지

